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미터법 전면실시(1964. 1. 1)를 계기 1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택시 승차요금 미터기(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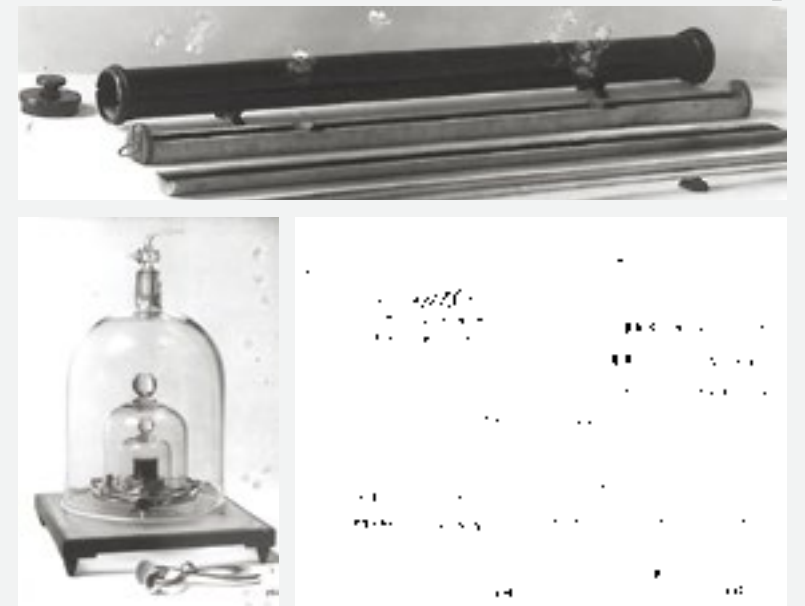
‘같은 치수의 고무신을 샀지만 제각각 다른 크기 때문에 낭패를 보곤 했던 어머니들, 전구소켓에 전구가 맞지 않아 안간힘을 쓰며 전구를 끼워보려 애쓰셨던 아버지들.....’, 1960년대 초반까지, 국민들은 여러 가지 도량(度量)단위 사용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미터법 전면 실시(1964.1.1.)를 계기로, 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측량단위, 언제부터 미터법 사용했나?”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9일부터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9건(동영상 6, 사진 5, 문서 3, 홍보물 7, 우표 2, 포스터 4, 유물 2)으로, 미터법 실시 경위, 미터법 사용을 위한 계도(啓導) 활동 등 우리나라의 미터법 사용 관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및 개인 소장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 미터법 실시(1964년), 제2회 계량의 날 기념식(1967년), 계량과 우리생활(1968년) 등 동영상 6건
- 택시 승차요금 미터기(1962년), 제1회 계량의 날 기념식(1966년) 등 사진 5건
- 도량형법(1905년), 대한민국의 미터협약 가입의 건(1958년) 등 문서 3건
- 국가는 재건시대 계량은 미터시대(1964년), 미터법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팔시다(1965년) 등 홍보물 7건
- 미터법 통일 실시 기념우표(1964년), 미터 협약 100주년 기념우표(1975년) 등 우표 2건
- 계량의 날 기념 포스터(1960~70년대), 미터법 생활화 거래의 선진화 포스터(1990년) 등 포스터 4건
- 국제미터원기(1894년), 국제킬로그램원기(1894년) 등 유물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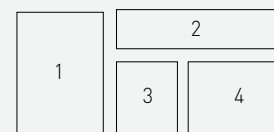


1



3

4



1 관보에 고시된 대한제국 도량형법 : 1905년 3월 도량형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되어 관보에 고시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

2 국제미터원기(1894년, ©국가기술표준원)

3 국제킬로그램원기(1894년, ©국가기술표준원)

4 계량단위의 미터법 통일 추진 : 1962년 상공부에서 작성한 문서로, 계량제도의 확립과 계량단위의 미터법 통일을 기하기 위한 추진사항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량제도는 1894년 국제미터원기(原器)와 킬로그램원기(原器)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02년에는 도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량형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도량형법」이 제정되었다.

2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여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증빙 상의 계량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작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尺貫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59년 우리나라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했으며,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하여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고 196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1962년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1963년부터 업무·증빙 상의 계량단위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터법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미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작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 1월 1일부터는 척관법(尺貫法), 야드·파운드법의 사용이 금지되고 미터법 사용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도량단위의 통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미터법 사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도(啓導)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길이를 잴 때에는 미터(m)지만 사용하자”, “바로재고 바로 달자 단골손님 늘어난다” 등 미터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표어가 등장했고, 척관법의 불편함과 미터법의 효율성을 홍보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또한, 미터법 홍보 리플릿 및 해설집을 배포하고, 출판물이나 방송프로그램에도 도량단위를 미터법으로 표기하여 출간 및 방영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미터제 계량단위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경우 1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미터제 계량기를 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미터법의 전면실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던 도량형 통일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회 계량의 날 기념식(1966년, ©국가기술표준원)



미터법 통일 홍보물(1964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1966. 2. 10.) 50주년 맞아 2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1960~80년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당시 기술력이 열악했던 철강, 중기계,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산업계에 연구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핵심 산업기술 및 첨단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불리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1966. 2. 10.) 50주년을 맞아,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KIST 설립,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실험 모습(1972년)

KIST 조직 연혁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1966년)
- 한국과학원(KAS)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1981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재발족(1989년)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27건(동영상 8건, 사진 15건, 문서 4건)으로, 한-미 대통령의 연구소 설립지원 공동성명, 연구소 준공, 해외 한인과학자 유치 등 KIST 설립과정과 주요 활동을 보여준다.

-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1965년), 호닉박사 내한(196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 및 시설·활동(1969년), 유전공학 여(女)삼총사(1988년) 등 동영상 8건
- 호닉 미대통령 경제담당고문 제일모직 사찰(1965년), 최형섭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임명(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공식(1966년), KIST 귀국 과학자 회의(1967년) 등 사진 15건
- 과학기술자 입국에 따른 자녀취학 조치(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 대통령 치사(1969년), KIST 연구사업 추진현황 종합보고(1972년) 등 문서 4건

1 미터법 통일 홍보물(1960년대)

2 계량 및 정밀계기 전시회 포스터 (1969년, ©국가기술표준원)

3 계량의 날 기념 포스터 (1960~1970년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실험 모습(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실험 모습(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종합연구기관인 KIST의 태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연구소 설립 지원을 합의했다. 그 해 7월 미국 존슨 대통령의 과학기술고문인 호낙(Donald F. Hornig) 박사 일행이 연구소 설립의 기술지원 조사를 위해 내한하면서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됐다.



최형섭 초대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장 임명(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공식 전경(1966년)



KIST 귀국 과학자 회의(1967년)

KIST는 1966년 2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연구소 건물 신축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종로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KIST는 홍릉임업시험장을 연구소 부지로 선정하여, 1966년 10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이 공포되어 정부재정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시설 공사와 더불어 연구를 수행할 인력의 유치활동도 병행됐다. KIST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한인과학자 유치에 힘썼으며, 18명이 1차로 연구소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높은 급여와 주택, 자녀의 취학 편의 제공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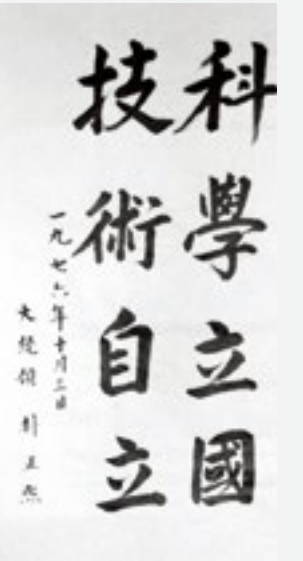
1969년 10월 연구소 건물의 준공으로 KIST는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에는 선진국 기술을 활용하여 폴리에스터 필름, 동복강선(銅覆鋼線) 등을 산업계에 보급하였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1



2



3

1980년대에는 반도체 소재, 광자기디스크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미래 산업을 대비한 기초기반 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힘썼다.

KIST의 성공적 운영 사례는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소 발족으로 이어졌고, 한국선박연구소, 해양개발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등 특수 전문 연구기관들이 KIST에서 분화·발전하며 우리나라 연구 개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KIST의 설립과 활동 관련 기록을 통해 산업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KIST 연구사업 추진현황 종합보고 :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현황을 1972년 6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통령비서실 문서이다. 종합보고에는 연구계약 실적, 분야별 연구현황, 특허 사용 계약현황,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사업 추진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태극기의 국기(國旗) 제정(1883.3.6.)을 계기 3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임시정부 ·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기념촬영(1921년,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정부수립 경축식에 게양된 태극기(1948년)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도, 광복의 기쁨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때에도, 우리 야구가 세계를 제패하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태극기가 있었다. 이렇듯 태극기는 1883년 국기로 제정된 이후, 130여 년의 세월을 대한민국과 함께 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태극기의 국기(國旗) 제정(1883.3.6.)을 계기로, 3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3월 17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45건(동영상 5, 사진 21, 문서 4, 우표 · 엽서 · 포스터 6, 유물 9)으로, 태극기의 변천과정과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소장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기록물 중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독립투쟁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 1944년 발행했던 태극기 우표와 광복 1주년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 및 엽서가 눈에 띈다. 또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5·10 총선거 포스터에는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라는 표어와 함께 태극기가 실려 있어 선거권 행사를 애국심 차원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이하다.

1



2



3



4

- 1 해방 1주년 기념 우편엽서(1946년, ©독립기념관)
- 2 5·10 총선거 포스터(1948년, ©국립민속박물관)
- 3 미국정부 발행 태극기 우표(1944년, ©독립기념관)
- 4 광복 1주년 기념 우표(20전)(1946년)

- 태극기(1963년), 북녘에 태극기를(1971년), 가장 오래된 태극기(1981년) 등 동영상 5건
- 서울 수복 후 태극기 게양(1950년), 3·1절 행사 태극기 입장(1952년),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1956년), 휴전선 대성동마을 태극기 게양(1971년) 등 사진 21건
- 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건(1949년), 국기게양방법(1950년) 등 문서 4건
- 광복 1주년 기념우표(1946년), 태극기 달기 특별기간 포스터(1998년) 등 우표 · 엽서 · 포스터 6건
- 데니 태극기(1890년경),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5년) 등 유물 9건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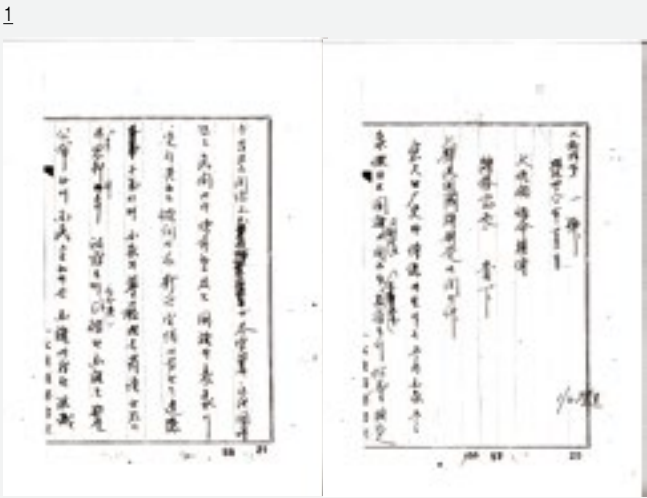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국기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882년 9월에는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가던 중 배 위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旗)를 만들어 사용했고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1883년 3월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당시 국기제작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태극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실제로 고종의 외교고문이었던 데니(Owen N. Denny)가 소장했던 태극기(1890년경)나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했던 태극기(1907년) 등 광복 이전의 태극기를 보면 태극의 문양과 괘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2
3	4

- 1 데니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 고종의 외교고문이었던 미국인 데니(Owen N. Denny)가 1890년 5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태극기로, 1981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되었다.
- 2 불원복 태극기(©독립기념관) :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일본군과 싸울 때 지녔던 태극기로, 상단에 ‘불원복(不遠復, 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 글귀가 새겨져 있다.
- 3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5년, ©독립기념관) : 광복군 대원으로 활약한 문수열이 전우 이정수에게 선물 받은 태극기로, 태극기 흰 면에는 광복군 대원 70여명의 친필이 적혀 있다.
- 4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1950년, ©독립기념관) : 6·25전쟁에 참전한 건국대학 법률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서명한 태극기이다. 태극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맹한 우리 역군’ 등의 글귀가 담겨 있다.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오늘날의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을 확정했고, 1972년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국기에 관한 사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 태극기는 구한말 이후 국권회복과 대한독립의 굳은 염원과 결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경일과 국가행사에 게양되었으며,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구한말 의병장 고광순은 태극기에 ‘불원복(不遠復, 조국의 국권을 곧 회복할 것이다)’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조국의 국권 회복을 기원했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1921년 신년축하식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기념촬영에도 태극기는 어김없이 광복을 향한 염원의 상징으로 함께 했다.

- 1 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건 : 1949년 1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를 제정하여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총무처장에게 전달하는 대통령비서실 문서이다. 정부에 국기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공서, 단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기의 표상을 정하여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 3·1절 행사 태극기 입장(1952년)
- 3 서울 수복 후 태극기 게양(1950년)
- 4 1948년 런던올림픽 선수촌 입촌식(1948년, ©독립기념관)
- 5 제15회 광복절 기념 시가행진(1960년)

1	2	3
	4	
	5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3·1절 및 광복절 행사 등 정부의 주요 행사에 태극기가 게양됐고, 경축 시가행진을 할 때에는 맨 선두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며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6·25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군은 태극기 위에 승전을 다짐하는 글귀를 새기며 조국수호의 의지를 불태웠고, 서울을 수복했을 때에는 舊 중앙청 건물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또한, 태극기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온몸에 휘감기며 환희의 상징으로 사용됐고, 선수들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응원의 도구로도 한 몫을 담당했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가로 60m, 세로 40m의 초대형 태극기가 경기장 응원석에 휘날리며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태극기와 관련된 기록을 발굴·정리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릴으로써,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등 신규표준 개발·고시



1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기능 및 업무절차 표준

1



2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기록물 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서비스 유형별 실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표준은 최근 기록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기록물 서비스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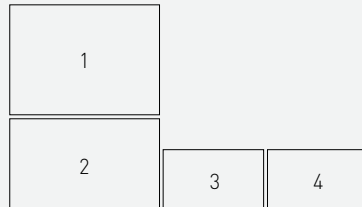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물 서비스 업무에 대한 통일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록물 서비스 분야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부족한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기관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년간의 표준화 작업반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이 표준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추진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기능 및 업무절차」를 개정·고시했다. 이 표준은 2008년 제정된 이래 7년만의 개정으로 최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업무절차를 명시하여 전면 개정된 것으로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표준 업무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표준의 제·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요청 등 개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이번 제·개정도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표준 본문은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 → 기록관리업무 → 기록관리 표준 → 표준화 현황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를 수 있다.



1



1 제5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태극기 카드섹션(1966년)

2 2002월드컵에서 대형 태극기로 응원하는 한국응원단(2002년)

3 제5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공연 중인 공연자들(1995년)

4 휴전선에서 광복절 기념 대형 태극기 게양식(1962년)



2

3



4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박정희 대통령의 방독자료 대통령기록으로 보존



대통령 관련 기록물 기증 협약식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첫 국민방문을 보도한 당시 독일 현지 신문 등 55건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하고, 기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증 기록물은 황인자 의원이 소장해 오던 발행된 지 50여년이 지난 신문과 사진으로 손상의 우려가 있어 전문적인 시설에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증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증 기록물은 황인자 의원이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 방독 50주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독일 현지 신문사 아카이브에서 직접 수집한 것으로 국민방문 동안 프랑크푸르트 알게 마이네 등 24개 언론이 보도한 48건의 기사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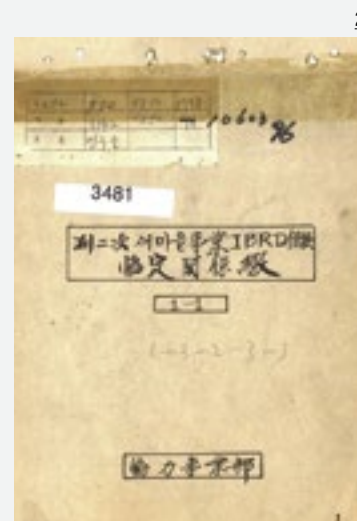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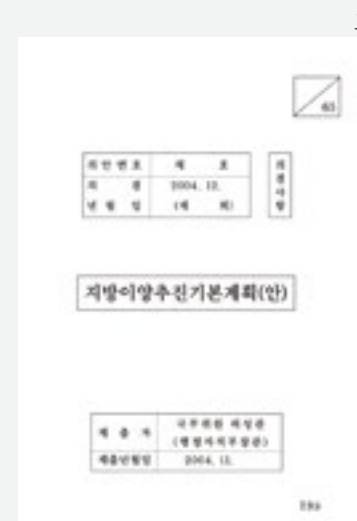
「한국에서 온 아시아의 프로이센인」
(1964.12.7. General Anzeiger(게네랄 안차이거))

이들 자료에는 1964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자격으로 독일을 첫 방문한 동정과 한국의 전통문화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60년대 한국에 대한 유럽국가의 인식과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실증자료로,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증사례는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자발적인 기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월부터 기증캠페인을 전개하여 8인의 기증자로부터 47건의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기증받기도 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기증된 기록물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 한시집(1980년)을 비롯하여 전두환 대통령 장군시절 친필회화(1971년), 노무현 대통령 의원시절 인터뷰 영상(1990년), 이명박 대통령 친필 서명 영문자서전(2011년) 등이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증받은 기록물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으며, 자발적인 기증문화가 확산되어 대통령 관련기록물이 지속적으로 발굴·수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통해 중요 기록물 130만 건 제공



- 1 제53회 국무회의 안전철
- 2 제2차 새마을사업 IBRD차관 협정관계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1983년)과 관련한 미국 동향보고와 주한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등 그동안 서고에 보존해 오던 130만 건이 국가 중요기록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온라인 검색과 방문열람이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그간 각 부처에서 이관한 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 서고에 보존돼 검색이나 열람이 어려웠던 기록물을 영구 보존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에 등록했다. 지난해에는 총 130만 건을 추가했다.

지난해 등록된 자료 중에는 당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온 대형사건을 포함하여 정부 기록물로는 처음 공개되는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외교·행정분야 기록물로는 2004년 제1회~제57회 국무회의 안전 철과 당시 참석자,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기재된 국무회의록, 故 김영삼 대통령 단식투쟁과 관련한 미국 동향(1983년) 등이 있다. 건설·경제분야 기록물은 제2차 새마을운동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사업의 차관액, 차관조건, 차관지구 내역 등 협정내용을 알 수 있는 제2차 새마을운동 IBRD 차관협정관계철(1978년),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철도·도로·항공·해운·항만 등 교통부문 계획 수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7차 경제개발철(1991년) 등이다.

과학기술·문화분야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1단계 목표를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탑재 소형위성인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사업 기본계획(2002년), 삼국유사 국보등급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보로 지정되는 전 과정을 기록한 국보 306호 삼국유사 권 제3~5권 문화재지정관계철(2000년) 등이다. 사회분야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상황보고 및 피해·지원내역(2003년), 주한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한·미 양국 정부의 대응조치와 피해보상 문제(1983년) 등이다. 이밖에 통일·안보, 교육, 보건·환경, 농림, 과거사 분야 등 주요 기록물이 다수 등록되어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정리사업을 통해 등록된 기록물의 목록은 현재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공개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면 열람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며,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원문 이미지 제공, 해제집 발간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국민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독립선언서류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 3·1운동 당시 국내외에 배포한 독립선언서로 최남선이 기초하였다. 이 선언서에서는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와 인류 평등의 대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시위 운동을 벌일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였다.



- 1 2·8독립선언서: 동경에 있는 조선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발표한 선언문과 결의문 중 4개항의 결의문이다.
- 2 3·1독립선언서(신문관판): 1919년 3·1운동 당시에 신문관에서 조판하여 인쇄한 선언서로 알려져 있다. 보성사판과는 판형과 활자체가 다르고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 3 경남 하동에 배포된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8일 경상남도 하동에서 박치화(朴致和)를 비롯한 12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 시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로,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는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하여 ‘보성사판’이라 명명하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여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1919.2): 1919년 2월 간도(間島)에 있는 애국부인회가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이다. 3·1운동 이후 미국, 노령, 만주 등에 있던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부인회를 조직하고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독립선언서류가 독립기념관 내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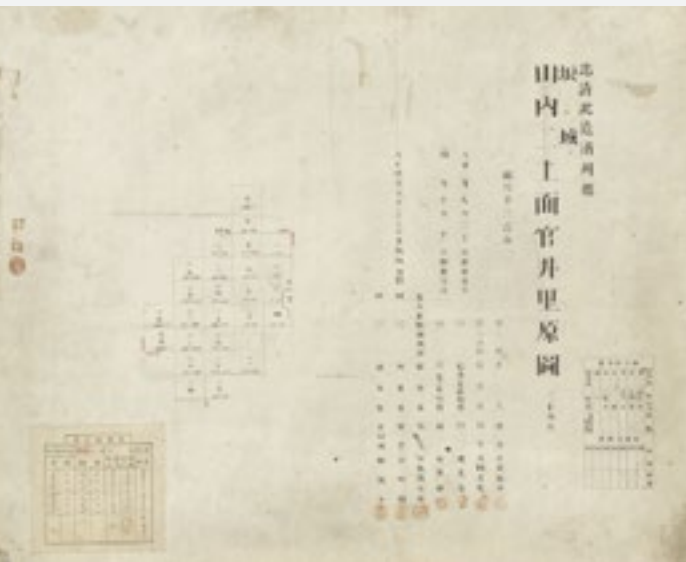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이 빛나는 독립선언서류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차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민이 많이 찾는 기록물 1천만 건, 안방서도 본다



지적원도 : 조선총독부가 만든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341만 건을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재산권과 관련 있는 토지문서를 비롯한 국가기록원 공개기록물 중 국민이 많이 찾는 약 1천만 건을 별도 공개청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전후에 생산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 약 357만 건을 12월 29일부터 누리집 (<http://www.archives.go.kr>)에 추가하여 소장기록물 총 1천만 건의 원문이미지를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하는 기록물은 경기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1948년~1970년대 토지관련 문서 16만 건과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강원·충청권 지적원도 341만 건으로, 지금까지는 국가 기록원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을 신청해야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토지 관련 문서는 광복 이후 농지개혁에 따라 1948년~1960년대에 생산된 분배농지·귀속농지 상환대장과 1950~70년대에 생산된 토지·임야대장이 주를 이룬다. 상환대장류에는 농지개혁 당시 분배된 농지의 지번·면적, 분배농가의 주소 등에 대한 내역이 담겨 있다. 또한 토지 측량도인 지적원도에는 지번과 소유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지적원도와 농지개혁 관련 문서는 개인의 재산권 확인이나 증빙 등을 위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소장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온 국가기록원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16종의 토지 관련 문서, 경기권 지적원도, 중앙·지방관서 및 학교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광복 이후 생산된 토지문서와 강원·충청권 지적원도까지 서비스됨에 따라, 앞으로 열람 수요가 많은 토지 관련 기록물 등을 이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고 이용자는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록, 독립운동 판결문, 관보, 일제강점기 기록물 등 약 586만 건을 온라인 서비스해왔다. 이번에 약 357만 건을 추가하여 총 943만 건을 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1,863만 건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 서비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절차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최초 여류비행사 참전활동 입증기록 복원

1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로 일본을 폭격할 그날을 기다리며, 중국 공군으로 활약했던 권기옥 애국지사의 비행학교 졸업장과 비행사 임명장 등 참전활동을 입증하는 중요 기록물이 복원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권기옥 지사의 모교이자 관련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송의여고가 복원·복제를 의뢰한 필업증서 등 5건 5매와 전쟁기념관이 의뢰한 한국전쟁 당시 발급된 국군수첩 등 2건 19매의 복원을 완료하여 최근 의뢰기관에 인계했다.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센터가 복원한 이번 기록물은 중국 항공서 부비항원(副飛航員) 임명장, 국민정부군 공군상위 임명장 등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권기옥 지사(1901~1988)의 공훈을 입증하는 중요 기록물이다.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 지사는 송의여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문일민, 장덕진 등을 도와 평남도청 폭파사건에 간여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쫓기다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항주 홍도여학교를 거쳐 중국 남서부 내륙에 소재한 운남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교했다. 1년 2개월여 만인 1925년 2월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가 되었다. 이번에 복원된 필업증서는 일본 다가와치(立川)비행학교를 1927년 졸업하여 여류비행사가 된 박경원 보다 2년여 앞선 것임을 입증한다.

2



3



1 1935년 중국 선전비행을 준비하던 무렵의 권기옥 (왼쪽에서 두 번째), 가운데 이탈리아 교관, 중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 이월화와 함께

2 비행학교 필업증서

3 항공서 부비항원 임명장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3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권기옥 지사를 선정하며 밝힌 공적에 따르면, 권 지사는 운남항공학교 졸업 후 모교에 잠시 머물며 견습비행사로 훈련을 받고 활동하다가 개혁성향의 군벌인 풍옥상(馮玉祥) 휘하 공군비행사를 거쳐 1926년 4월 동로군 항공서 부비항원(副飛航員)이 되었다. 항공서 부비항원 임명장은 이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7년 받은 비행원 위임장은 장개석이 이끄는 동로항공사령부가 복벌을 시작하면서 받은 것으로, 이때부터 10여 년을 중국 공군으로 활약했다.

1928년 4월 남경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권기옥 지사는 석방된 뒤 국민정부 군정부본부에 합류하여 1929년 항공서(署) 항공 제1대 상위 관찰사에 위임되었는데, 이때 받은 위임장도 이번에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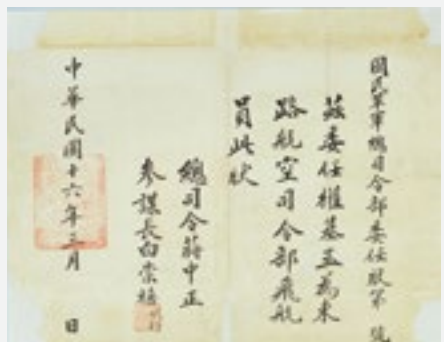
1933년에는 국민정부군 정부 본부 항공서 교육과 번역원 겸 공군 상위에 임명되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경에 소재한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 활약했다. 이후 권기옥 지사는 1943년 중경 임시정부 직할로 재조직된 한국애국부인회 사교부 주임 등으로 활동했다. 1948년 귀국 후에는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연감(年鑑)」 발행인,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재향군인회 명예회원을 역임하고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1988년 4월 19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권기옥 지사는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로 당시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던 편협한 인식을 극복했고 조국 독립을 위해 비행하였기에 진정 의미 깊은 삶을 산 독립운동가이고, 근대 한국인”이라며, “권기옥 지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복원한 것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많은 자료들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능이 대폭 확대 개편된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센터는 6·25전쟁 당시의 전황과 군부대 일면을 볼 수 있는 국군수첩과 표창장 2건 19매도 복원하여 전쟁기념관에 인계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및 의뢰받은 기록물 총 2,000여 매를 올해 중 복원할 계획이다.



1935년 중국 선전비행을 준비하던 무렵의 권기옥(오른쪽)



동로항공 사령부 비행원 위임장



번역원 위촉 공군상위 임명장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여성독립운동자료집
(3·1운동편) 발간

정막래 · 이소선 판결문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모진 고문과 폭력을 참아내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3·1운동 참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내용을 담고 있는「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이 발간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7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판결문」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카드」를 정리하여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그간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각 분야별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빈약했는데, 이는 여성독립운동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일반국민에게 여성 독립운동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해 자료총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는 제1부 3·1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의, 제2부 판결문과 수형기록카드에 대한 해제, 제3부 판결문, 수형기록카드 원본과 번역본을 수록하였다. 「판결문」에 포함된 총 34건 54명의 3·1운동 참여 여성독립운동가 중에는 당시로선 고령인 57세의 객진근(郭鎭根), 13세의 한이순(韓二順) 등이 있어 항일독립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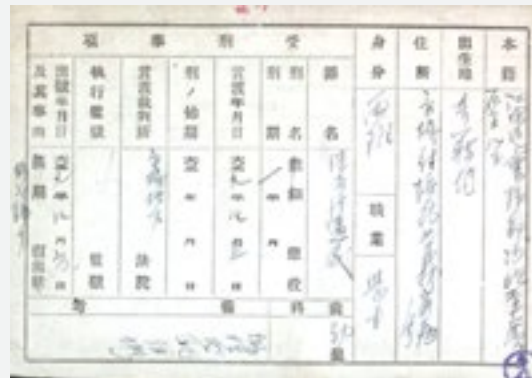
이들을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학생 26명, 교사 9명, 간호사 5명, 개신교 전도사(여성) 3명, 교회 총무 1명, 기생 2명, 이발업 1명, 재봉업 1명, 무직 3명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명, 40대가 1명, 30대가 6명, 20대가 18명, 10대가 가장 많은 27명이었다. 10대중 19세와 17세가 각각 9명이고, 1906년생인 13세도 1명 포함되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경기, 강원, 황해, 평남,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으로 여성들의 3·1운동도 전국적이었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 여성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2015년 11월 말 기준 독립유공포상자 14,264명 가운데 여성은 270명인 1.9%이고, 3·1운동 포상자 4,832명 중 여성은 87명인 1.8%에 불과)



특히, 경남 통영군의 이소선(李小先)·정막래(丁莫來)는 1919년 4월 2일 통영군 통영읍에서 기생들과 함께 기생단(妓生團)을 조직하여 통영면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선동한 죄로 1919년 4월 18일 징역 6월을 언도받았다. 3·1운동에 기생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사진 등을 통해 일부 알려져 있지만, 판결문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대문형무소 수형기록카드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참여자가 많아 주목된다. 이제까지 수형기록카드는 일부 연구에서 활용되긴 하였지만 이를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수형기록카드는 총 180명이고, 이중 3·1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는 총 3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형기록카드는 당시 독립운동가의 기본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대표적 여성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유관순(柳寬順) 열사의 경우, 수감당시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김경화 수형카드: 김경화 · 이수희 등 배화여고 학생 24명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1920년 3월 1일 투쟁을 벌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밝혀졌다.

유관순 열사는 수감당시 18세이고(1902년생) 신장은 5척(151.5cm), 신분은 평민, 직업은 정동여자고등보통학교(이화학당) 학생, 죄명은 보안법위반 및 소요, 형기는 징역 3년, 그리고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을 언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수희·김경화 등 배화여고 학생 24명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1920년 3월 1일 투쟁을 벌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도 밝혀졌다.

본 자료집과 관련하여, 박용옥(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 前 성신여대 교수)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수많은 폭행과 모욕을 당하였고 열악한 수감생활을 견뎌야 했음에도 관련 자료가 없어 독립유공포상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자료집은 여성항일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첫 자료총서 간행이라는 점에서 여성사학계는 물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이 제대로 밝혀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여성독립운동 자료총서 발간을 계기로 국가기록원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국내외 여성 독립운동사 등에 대한 자료총서를 매년 단계적으로 발간하여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3.1운동편)」는 2월 29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발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발간



한말부터 현재까지 15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이주사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가 발간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내·외 한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화합과 상생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한인 이주와 관련된 사진, 문서, 신문, 서한, 박물관(博物) 등 기록자료 정리한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기록자료집을 3·1절 주간에 발간·배포하였다.

기존에 발간된 이주사 관련 책들은 연구논문 형태로 발간되거나 한정된 지역과 시대에 대해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 이주의 역사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기관·단체·개인 등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한인 이주 기록자료 1,056점을 수집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그림책을 보듯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보집 형태의 이주사 자료집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이주사 자료집은 아시아(중국, 일본, 기타아시아 등), 아메리카(북미주, 중남미 등), 유라시아·유럽(러시아, 중앙아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시대별 한민족 이주의 역사를 통사(通史)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재외한인의 이주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 연해주 이주를 시작으로 1910년대까지 이루어졌으며 주로 가난과 배고픔, 지배층의 수탈로 인해 이 시기 농민과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중국, 러시아, 하와이 등지로 떠났다. 두 번째 시기인 1945년까지는 일제 통치하에 토지와 생산 수단을 빼앗긴 이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광복 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수립한 1962년 이전까지로 전쟁고아, 유학생,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한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인 1962년부터 현재까지는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이루어졌고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한인사회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렇듯 재외한인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연을 안고 세계 각지로 이주하였지만 기록을 통해 보여지는 조국사랑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1919년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와 국내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3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간도 용정촌(龍井村)의 서전대야(瑞甸大野)에 모여 3·13만세시위 운동을 펼치며 발표한 「독립선언포고문」, 하와이의 한인들의 「독립선언서」 등의 기록을 통해 조국 독립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

1



또한 1966년 한국은행에서 경제장관에게 보고한 「재외한인과 파견근로자의 국내 송금 현황」 문서에서는 1965년 재일교포 약 155 달러, 서독 광부 121만 달러, 파월(베트남) 기술자 2천 9백 달러 등을 송금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광복 이후에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동남아시아 파견 기술자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이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1880년대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초기 한인들의 모습과 우리나라 최초 이민자에게 발행한 여행권(여권) 기록, 1905년 이민 모집 광고문과 1921년 멕시코 이주 한인 혼인증명서 1906년 민족교육의 요람이었던 「서전서숙(瑞甸書塾)」, 1962년 「해외이주법」, 김치 등 전통 음식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의 생활자료 등을 통해 재외한인은 왜 이민의 삶을 선택했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조국의 언어와 문화·풍습을 지키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50여년 전 아르헨티나에 이주해 빈민가 샷일로 시작해 현재는 아르헨티나 의류시장의 40%를 점유한 한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아베자네다 한인타운’과 미국 속 한국을 알리기 위해 1974년부터 개최된 ‘미주지역 최대 한인축제인 LA 코리안 페레이드’ 모습과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비옥한 옥토로 개척하여 구 소련시절 노력영웅으로 추앙된 김병화의 ‘북극성 콜호즈(집단농장)’ 관련 기록들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당당히 거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이룩한 재외한인의 발전상을 느끼게 해 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자료집이 720만 재외한인의 삶과 애환을 달래주고 그동안 보여준 조국사랑에 대한 감사의 증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외한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그 의미와 기대를 나타냈다.

기록자료집은 국내외 도서관, 기록관, 학회, 한인회, 한글학회 등 1,700여 개 기관·단체에 책자와 e-book 형태로 배포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7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발간자료”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LA 한인축제 ‘코리안 페레이드’ (1976년)

2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1880년)

3 하와이 이민자 여행권(여권)(1903년)

4 초기 이민자 개척 농장

국가기록원 소식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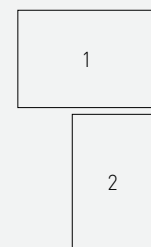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찾습니다”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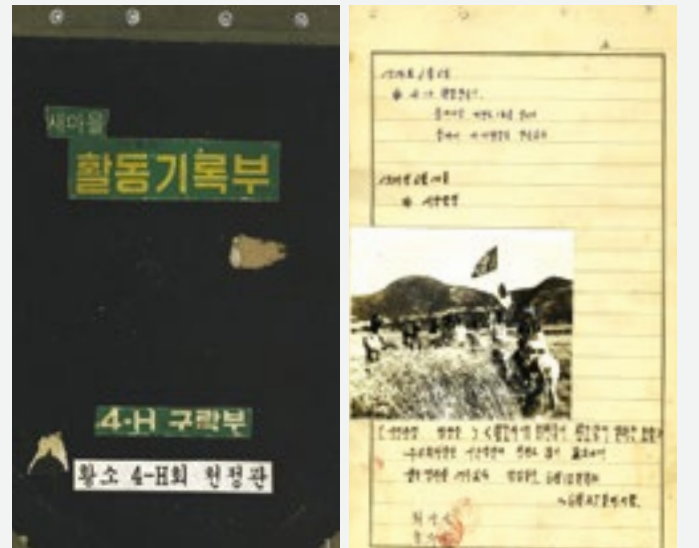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소장자의 고령화로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국가기록물로 보존·활용한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마을회관 등에 산재되어 있고, 기록물 소장자가 고령이 되어 가는 등 열악한 보존환경 속에 놓여 있어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관련 기록물의 기증신청과 소재정보 제보를 받는다.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 중인 새마을운동 기록물(22,084건)은 지난 2013년 범인류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수집대상 기록물은 생활환경개선·소득증대·의식개혁 등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 중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마을발전계획서, 작업일지, 작업대장, 회의자료, 지침서 등의 문서류와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기록물,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련 물품이 포함된 박물관 등이다.



- 1 새마을사업 모습(1972년)
2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 하천 정비 모습(1972년)



새마을 활동기록부 : 1974년부터 1975년에 걸쳐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2동 황소 4-H회 천정관 회장이 작성한 새마을 활동기록부이다.

기증 신청된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국가기록원 내)의 가치 평가를 거쳐 기증 여부가 결정되며, 기증이 확정된 기록물은 협약 체결 후, 국가기록물로 영구히 보존·활용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에 대한 감사장, 기증자카드 및 소정의 감사선물이 증정되며, '기증자의 벽'(성남 소재 서울기록관에 설치된 기증자 명예의 전당) 이름 등재,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열람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증 안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에 공지되고 있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기록물을 기증할 의사가 있거나 소재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록물 기증신청서'나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담당자(042-481-1766)에게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이 발굴되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을 실시하여 왔는데, 올해는 특히,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74년 세월 곳곳 훼손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복원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여'편 표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 이자, 등록문화재 제524-2호인『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이하 편찬원고)』총 17권 중, 훼손이 심한 2권을 11개월여에 걸친 작업 끝에 복원하였다.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편찬원고*는 '여'편과 'ㅎ'편으로 독립기념관이 소장하여 왔는데, 산성화가 진행되어 곳곳이 바스라지고 일부가 소실된 상태였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부전지(附箋紙, 특이사항이나 추가설명을 위해 사용된 쪽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저급용지(갱지)가 사용된 곳의 훼손이 특히 심각한 상태였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는 조선어학회가 1929~1942년까지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염원과 열이 녹아 있으며,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인『조선말 큰사전』 편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역사적, 국어학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자료이다. 이 원고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한글학회는 1947년 이를 바탕으로『조선말 큰사전』 2권을 간행하였으며, 3권부터는『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을 간행하였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ㅎ'편 내지

●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복원처리 과정 ●



테이프 제거



구(旧) 보수지 제거



훼손부위 보강



뒤틀림 보정



수작업 탈산처리 과정



제책 과정

국가기록원은 훼손부위를 한지로 보강하고, 산성화가 진행된 원고를 수작업으로 탈산처리를 하였으며, 보존성 향상을 위해 중성지 폴더와 상자를 제작하여 복원처리한 원고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편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제본을 제작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여'편을 '15년 11월에 이미 복원·복제를 완료하여 소장기관인 독립기념관에 인계하였고, 이번에 완료된 'ㅎ'권은 3월중에 인계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복원 완료된 '여'편, 'ㅎ'편을 기증자료전시, 특별전시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선열들의 시대정신이 담긴 기록물로, 이를 복원·복제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며, 이번 복원이 조선말 큰 사전 편찬원고가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New Book

국내 일반 도서

새로 나온 책

조선시대 상업출판



– 이윤석(지은이)
– 민속원

이 책은 이제까지 한국의 책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상업출판에 관한 것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조선에서는 상업출판물이 나타나고, 19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상업출판물이 활발하게 간행되는데, 이 상업출판물의 주된 독자는 서민이다. 조선시대 서적 문화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된 독자였던 상업출판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이 이 분야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딸, 충을 들다



– 정윤현(지은이)
– 인문서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이라든가, 근대 이후 '여성해방', '여성 지위 향상'의 과정을 겪어온 것은 비단 중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서구의 '여성해방' 사조의 영향으로 여성 문제가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그 논의가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구하는 데 여성이 기여함으로써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중국근현대여성사



– 윤혜영 · 천성림(지은이)
– 서해문집

김락, 박차정, 안경신, 권기옥, 이병희, 주세죽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대열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24인의 삶과 행적을 복원한 책이다. 대갓집 마님에서 최고의 신식교육을 받은 엘리트 신여성까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을 찾겠노라 치열하게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 24인의 아름답고 용감한 삶, 용감해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들려준다.

김종필 증언록(1~2)



– 김종필(지은이)
– 중앙일보 김종필증언록팀(엮은이)
– 와이즈베리

김종필과 중앙일보 김종필증언록팀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114회에 걸쳐 연재된 '김종필 증언록-소이부담'의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5.16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JP의 43년 정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중앙일보 연재 내용과 글의 순서, 관련 사진을 수정, 보완, 재편집함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에 숨어 있던 거친 곡절과 절묘한 반전을 고집어내어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북막일기



– 박래겸(지은이)
– 조남권 · 박동욱(옮긴이)
– 글항아리

「북막일기」는 북평사 박래겸이 남긴 254일간의 기록이다. 저자인 박래겸의 본관은 밀양, 자는 공익, 호는 만오.탐서다. 1822년 암행어사에, 1827년 함경도 북평사에 제수되었다. 북평사는 조선시대의 정6품 무관 벼슬로 원래 이름은 병마평사였으나 줄여서 북평사 혹은 평사라 불렸다. 외관직이었으며 영안도(함경도)와 평안도에 각 한 명씩 파견했다. 「북막일기」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1827년 7월 14일 북평사 관직이 내려진 뒤부터 1828년 4월 2일 도성의 자택에 당도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았다.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 조영준(지은이)
– 소명출판

이 책은 조선 왕실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회계 기록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분석한 사실상의 첫 시도이다. 왕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 그리고 나아가 조선 경제에 대한 다각도에서 살펴봐왔다.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에서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의 불가분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책의 수많은 도표와 그림 자료들을 통하여 재정과 시장의 상호 관련에 한층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실재정의 중요성도 환기하고 있다.

현대 구술사연구의 현장



– 도날드 A. 리치(엮은이)
– 손동유 외(옮긴이)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원제 The Oxford Handbook of Oral History) 미국의 저명한 구술사 연구자인 도날드 에이 리치가 엮은 책으로 여러 나라의 40명의 연구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 책은 인터뷰라는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기억과 역사의 상관관계, 구술사에 대한 학계의 이론과 구술현장에서 얻는 새로운 해석, 기술의 발전이 구술사 연구에 미친 영향, 법과 윤리의 문제 및 대안, 구술 기록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 그리고 구술사를 통해 역사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화잡지 書畫雜誌



– 성해응(지은이)
– 손혜리 · 지금원(옮긴이)
– 휴머니스트

18세기 조선의 검서관인 성해응이 뛰어난 서화가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인상 비평을 솔직하고 간결한 문체로 남긴 감상집이다. 그는 서화에 대한 정보, 시문과 화풍의 특색, 서화와 관련된 일화 등을 간략하고도 적실하게 기록했으며, 문사에 대한 기록 중 자신의 견해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으면 다양한 자료와 전거를 활용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고증했다. 성해응이 선별한 서화 작품에 대한 110제의 제화는 18세기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향유된 예술의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016년 민간기록물 기증캠페인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기록물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등 우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기록물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기록물 기증 및 소재정보 제보가
대한민국의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① 주제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시기_ 1970~1980년대

내용_ 농촌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 등
새마을운동 전반과 관련된 기록물

대상_ 개인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운동관계자 등)
및 민간단체가 보유한 기록물

▷ 대상기록물 유형

문서_ 보고서, 증명서, 편지, 일기, 메모, 수첩, 도면, 카드 등
시청각_ 사진, 필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등
박물_ 훈장, 기념품, 액자, 족자, 그림, 상패, 팸플릿, 포스터 등

② 참가대상 제한없음(누구나)

③ 기간 2016년 3월 7일(월) ~ 연중 접수

④ 참가방법 기록물 기증 및 제보 신청

가. 기록물 기증 신청 : 기록물 기증신청서 및 대상 기록물의 사본
(이미지)를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나.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2호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이메일 : moonai80@korea.kr / 연락처 : 042-481-1766

※ 신청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⑤ 기증자 예우

가. 기증에 대한 감사장, 기증자카드 및 감사선물 증정
나. 기증자의 벽(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이름 등재
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
라. 국가기록원 견학 및 행사 초청

⑥ 유의사항

가.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함
나. 기록물 기증은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다. 기증 신청된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의
가치 평가를 거쳐 기증 여부가 결정됨
※ 평가결과에 따라 기록물 기증이 제한될 수 있음
라. 기증이 결정된 기록물은 협약 체결 후, 국가기록물로
영구보존 · 활용됨

